"목포 근대문화자산 가상 체험하세요"

인물·역사·문화·유산 등 아카이브 구축…다음달 공개

목포시가 근대문화자산을 집대성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목포시는 '목포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인물, 역사, 문화, 유산 등 목포의 근대 자료를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고 총 3개사가 참여해 지난해 8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용역을 추진해왔다.

아카이브는 11월부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홈페이지(www.mokponet.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www.mokpo.go.kr/tou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용역은 목포 근대문화자산 기초조사부터 건축물 실측조사 및 3D모델링, 디지털 자료화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건축물 3D 모델.

기초조사는 자료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했다.

목포 근대에 관한 인문학적 자료, 고사진, 고지도, 신문기사, 건축물 등 연관된 모든 자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도록 했다.

극작가 김우진을 검색하면 가족 관계, 작품 활동, 연인 윤심덕 등을 고증하는 사료들이 함께 제공한다.

보존상태가 우수한 목포 근대 건축물들은 실측을 통해 3D모델로 제작하고 이를 3D지도에 입체적으로 구현했다.

디지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방문하지 않고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목포 근대문화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은 물론 관리자와 사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정보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 변화상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는 우수한 근대역사자산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동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아카이브 구축으로 대부분 사료들을 정밀하게 정비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순천 시립 신대도서관 건립 첫삽

180억 들여 내년말 완공

순천시가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천시립 신대도서관' 건립 공사를 착공했다. 〈사진〉

신대도서관은 1만8742㎡ 부지에 총사업비 180억원(국비 72억원, 시비 108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2층 연면적 5642㎡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은 일반자료실 외 순천 인물자료실, 소규모 극장, 강당, 메이커 스페이스, 작가의 방, 표현활동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신대도서관은 누구나 산책하듯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도심 속 자연'을 콘셉트로 신도심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독서 활동 기반 제공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대도서관이 안전하게 시공돼 시민들의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무산김·표고버섯 등 장흥 농특산물 유럽시장 알린다

군, 판아시아·골든힐과 수출협약

장흥군이 오스트리아 빈 판아시아(정종완 회장)와 수출대행기업 골든힐(대표 한문철)과 3자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은 전남도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지난 8월 아르미쌀 월 7t 수출에 이어, 이번 해외기업과 3자 협약을 통해 연간 50만 달러의 장흥 농특산물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용경), 용두농협(조합장 백찬인) 등을 기점으로 오스트리아 빈, 독일 등에 장흥군 특판 행사장을 신설해 장흥만의 특산품이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이번 성과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장흥 농특산품의 꾸준한 판로를 개척한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5일 행사에 참석한 판아시아 정종완 회장은 "장흥군의 농특산물은 맑은물 푸른숲의 명성에 맞게 수려한 자연환경과 행정-농협-농업인들의 노력으로 고품질의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해 그 품질이 뛰어나다"며 "오스트리아를 기반으로 아시아 슈퍼마켓을 운영해 장흥의 흥에 맞는 차별화된 농특산물을 유럽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지난 25일 오스트리아 빈 '판아시아'와 수출대행기업 '골든힐'과 3자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 제공〉

정종순 장흥군수는 "장흥군의 수출 농산물은 전남에서 약 3%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흥의 농특산물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유통 등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쌀, 잡곡류, 무산김, 장류, 표고버섯 등 다양한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해남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생태캠핑

다음달 6~7일 땅끝황토나라테마촌

해남군이 11월 6~7일 땅끝황토나라테마촌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생태캠핑'을 개최한다.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테마촌 숲속캠핑을 비롯해 생태탐방로, 해안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은 반려견 수제간식 만들기와 숲속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생태탐방로 트레킹 등이 진행된다. 특히 10가지 사진과제는 땅끝점에서 반려견 안고 사진 촬영, 달마고도 너덜에서 반려견과 사진 촬영〈사진〉 등 다양한 주제를 준다.

송호와 땅끝마을, 달마고도 등 땅끝권 일대에서 반려견과 함께 해남의 청정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진 과제를 인증하면 1~3등까지 시상은 물론 베스트 후기와 베스트 포토, 최고령 반려견, 다견가족 등에게 반려견용품과 해남특산품을 선물로 증정한다. 행사는 토, 일 중 1일만 참여하는 1일 부문과 1박 2일 부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숲속캠핑장을 이용해 캠핑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모두 20여팀, 반려견은 소형, 대형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는 선착순이며, 군 관광실 전화접수로만 받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내장산백암사무소 '가을 단풍철' 불법행위 단속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탐방객이 몰리는 가을 단풍 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채취, 취사, 흡연, 반려동물 동반입장, 비법정탐방로 출입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30일부터 11월14일까지 16일간 이뤄진다.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병수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모든 탐방객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공원내 탐방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신안서 30·31일 대한민국 자생란 대전

'대한민국 자생란 대전'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국무총리상 대상(大賞)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1천여점의 한국춘란, 풍란, 석곡, 한란, 무늬새우란 등 희귀자생란이 선보인다.

국무총리상을 대상 훈격으로 으뜸상 13점을 비롯해 126점에 대한 시상식과 자생란 클리닉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국무총리상 신설은 작년 12월 신안군이 (사)대한민국 자생란협회와 협력해 산림청을 통해 행안부에 정부시상을 건의해 지난 3월 확정됐다.

대한민국의 자생난의 가치를 홍보하고 그린뉴딜과 연계한 난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안군의 꾸준한 노력과 군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이루어 낸 결과라고 군은 설명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